

10代소녀 접대부로 고용 술집등 38곳 무더기 적발

영장 7명
입건 35명

【水原 任具彬】경기도경 찰청은 22일 10대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, 음란행위를 시켜온 38개소 술집주인과 직업소개사무장을 42명 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검거했다.

경찰은 이들 중 富川市中 구深谷2동 태평양살롱주 인李성우씨(37)와 水原市 제11직업소개소 사무장金忠九씨(35)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松炭의다.

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달 25일부터 金모양을 17세미성년자 3명을 접대 부로 고용, 술집을 들게 하고 음란행위를 시킨 현

직업소개사무장 金씨 는 지난 7월 水原시 池洞 사무소에 민원인을 가장해 들어가 청구에 있던 분장을 미를 등 보판함에서 성년 여자주인들을 3장을 절취, 구직하기 위해 찾아온

미성년자 차모양(16) 등 3 명에게 사건을 불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 뒤 15만원을 받고 水原시 勸善 동 영교카페에 접대부로

91.10.3

女高生 교복입혀 손님 술시중 강요

서울지검 李光珩검사는 3일 오후 5시경 하프관 교복을 입힌채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한 沈順子씨(41)를 식음료영업위반 혐의로 구속했다.

검찰에 따르면 沈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이

서울城北구東小門동의 자 신이 경영하는 정양식집에 서울 모의고 3년생 金모양(18) 등 2명을 고용, 교복 을 입힌채 칸막이가 있는 객실에 들어가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

11.8.29

단신

김부남씨 석방요구 성명

성폭력 특별법 추진위

한국성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, 대구여성회, 전주 김부 남사건대책위원회 등 4개 단 체로 구성된 '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'는 27일 전 주지법에 '김부남사건을 보 는 우리의 입장'이라는 성명 서를 전달했다.

최영애(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), 이현숙(여성의 전화 지도위원), 박영숙(신민 의 원) 등이 전달한 성명서는 △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해 구속 수감중 인 김부남씨를 무죄 석방할 것 △우리 사회의 이중 성구 조에 의한 피해자인 김부남 씨는 '인간답게 살 권리'가 있으며 △성폭력 특별법 제 정과 피해여성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 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 다.

6살 성폭행 남성 2명

채찍질 회교율법 처벌

【이슬라마바드=로이터 연 합】 6살난 아이를 성폭행한 파키스탄 남성 두명이 25년 징역형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 는 회교 율법의 엄격한 제재 를 받았다고 파키스탄 관영 <APP통신>이 25일 보도했 다. <APP> 보도에 따르면 카라치 동북쪽 신드주 하이 데라바드에서 어린 소녀를 폭행한 두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각각 30번씩의 채찍 질이 가해졌다.